Disaster Haggyo

□ 사업목적

- 산업공해, 기후 변화, 판데믹과 같은 '느린 재난'의 위협이 세계적으로 불거지며 동시대 재난 연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재난에 대한 새로운 정의 수립뿐만 아니라,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대안적 연구 방법론의 개발을 촉구한다. 이에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소(KAIST Center for Anthropocene Studies)와 한국, 네덜란드의 현대 미술 단체 및 큐레이터로 구성된 다국적 큐레토리얼 팀이 협동하여 한국 인류세의 재난 현장을 중심으로 한 연구 프로젝트 '재난 학교(Disaster Haggyo)'를 개진하고자 한다.
- 베를린 HKW(Haus de Kulturen der Welt)의 인류세 커리큘럼(Anthropocene Curriculum)에 대응하여 수립된 본 프로젝트는 재난학(disaster studies) 학교로서 재난 연구를 선도하며, 공동체의 이익에 기여하는 초학제적 플랫폼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재난 학교의 틀 안에서 예술가, 사회학자, 과학자들과 학생들은 자유롭게 교류하며 상호간 배움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재난 정책 형성에 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창의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재난 학교의 활동은 다음 세 가지의 목표를 나침반 삼아 추진된다. (1) 국가적으로 가장 긴급한 재난의 영역을 선정하여 다학제적 연구를 추진 (2) 재난 연구에 필요한 사회과학적 기량뿐만 아니라 기술, 정책 혁신에 기여하는 대안적 교육 모델 제시 (3) 공동체의 안전과 회복에 기여하는 공동체 기반 행동 모색

□ 추진 내용

- **프로그램**

- 한국 인류세 재난 현장 조사, 제주부터 DMZ까지: 재난 학교는 연례 여름학교의 형식을 따른 3개년 연구, 교육 프로젝트로 설계되었다. 2022년 여름 재난 학교의 커리큘럼은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소 소속 학자들을 비롯하여, 큐레토리얼 팀(언메이크 랩, Framer Framed, Suns and Stars)이 초청하는 다국적 · 다학제적 예술가 및 연구자들의 현장 참여를 통해 완성된다. 모든 연구 활동은 현장 조사(field research)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총 네 개의 한국 인류세 재난 현장— 1. 제주도 2. 포항 3. 안산 4. DMZ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각 현장에서 참가자들은 환경학자, 피해자 지원 활동가 등 현지 공동체 일원들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재난의 역사가 공동체에 미치는 강하고 깊은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학습한다.

- 대안적 교육 모델 실험: 재난 학교의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은 협업, 그 중에서도 '다학제 간' 협업이다. 재난학교에 참가하는 예술가, 연구자, 학생들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경계가 뚜렷한 '교실 모듈'의 한계를 넘어, 유연하게 교류하고 소통하며 서로의 전문 지식과 연구 과제를 공유한다. 또한 재난 학교는 HKW의 Anthropocene Curriculum에서 시작된 기존의 다학제적 모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현장 중심', '온라인' 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융합한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언뜻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라인 트레이닝을 통해 현장 교육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상호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재난 연구와 신기술 교육의 융합이라는 측면이 존재한다. 참가자들은 문화기술 방법론, 기록 연구 방법론과 같은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학습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원격 탐사, 지리 정보 시스템과 같은 신기술 교육을 받게 된다. 이는 참가자들을 단 몇 주 안에 전문가로 탈바꿈시키기 위함이 아닌, 학제 간 연구에 유용한 기본 기술을 갖추도록 한다는 목적을 수반한다.

- **2022 암스테르담 – 대전 하이브리드 프레젠테이션:**

- 8월 25일 여름 학교 프로그램 종료 후, 참가자들은 12월 첫째주 프레젠테이션을 목표로 약 3개월 동안의 추가 리서치를 통해 연구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그 기간 동안 재난 학교의 온라인 플랫폼은 참가자들 간의 원격 교류 및 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연구 과정, 또는 결과물을 창의적인 포맷으로 발전시켜 12월 첫째주, 한국 KAIST와 네덜란드 Framer Framed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하이브리드 프레젠테이션 행사에서 발표한다. 이 행사를 위해 Framer Framed 와 ASCA(Amsterdam School of Cultural Analysis)가 공동 주관하는 사전 오픈콜이 진행되며, 오픈콜을 통해 선발된 (네덜란드 기반)참가자들은 재난학교 프레젠테이션에 대응하는 연구 주제, 예술 작업 등 다양한 성질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 **세부내용(프로그램 구성**)

- **참가자 모집 및 선정 기준:** 학생 참가자들은 각 그룹별 16명, 총 32명을 모집한다. 모집 활동은 카이스트, 연세대학교, 그 외 해외 교육 기관을 통해 진행하며 2-4명은 네덜란드 오픈콜(Framer Framed 주관)을 통해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 **사전 온라인 트레이닝:** 참가자들은 8월 재난 학교 프로그램 시작에 앞서, 디지털 플랫폼에 준비된 문서 및 강의들을 열람하는 사전 온라인 트레이닝 기간을 가진다. 이 사전 자료들은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수월하게 몰두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추후 다른 참가자들과의 협업 및 창의적인 현장 연구 수행을 돕도록 설계된다.

- **일정 및 그룹 구성:** 프로그램은 그룹 A 와 그룹 B, 총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며 참가자들은 경우에 따라 하나 또는 두 개의 그룹을 선택할 수 있다. 그룹 A는 8월 14일 대전 카이스트 캠퍼스에서 시작, 안산 현장 답사를 거쳐 21일 제주도에서 마무리하며 그룹 B는 8월 18일 제주도에서 시작, 포항·울산 현장 답사를 거쳐 25일 대전에서 마무리하는 일정이다. 단, 18일에서 21일까지는 두 그룹이 제주도에서 만나 공동 현장 리서치를 진행한다.
- **카이스트 캠퍼스 강의 모듈:**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소 소속 Scott Gabriel Knowles, Kim Fortun, Jacob Remes, 박범순 교수가 각자의 전문 리서치 분야를 바탕으로 재난 정의, 재난의 역사학, 동아시아 인류세에 관한 강의를 진행한다.
- **하이브리드 워크샵 모듈:** 네덜란드의 Framer Framed, Suns and Stars, 언메이크랩의 큐레이션으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워크샵(hybrid research) 모듈 또한 일정에 포함된다. 이 프로그램은 '세 개의 섬' 이라는 큐레토리얼 컨셉을 바탕으로 네덜란드, 한국, 대만, 일본의 작가들과 연구자들이 학생들과 함께 전후 동아시아 재난의 역사와 생태학적 위기에 대한 관점을 나누는 모듈이다. 참여 작가들과 학생들은 스크리닝, 퍼포먼스, 대화 등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영감과 지식을 공유하며 예술적 리서치(artistic research) 스킬을 강화한다.
- **제주, 안산, 포항 현장 조사:** 현지 공동체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이끄는 재난 현장 조사.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인해 대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 플랫폼(Disaster Haggyo)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 등으로 임시 대체한다.**

2022 재난 학교 프로그램 일정

7/15 사전 온라인 트레이닝 자료 및 온라인 커리큘럼 업로드

그룹 A 시작

8/14 환영식, 카이스트 캠퍼스 강의
8/15 기록과 분석의 기술; 대전 카이스트 캠퍼스
8/16 예술과 미디어; 대전 카이스트 캠퍼스
8/17 안산: 세월호 리서치 데이
8/18 워크 데이; 카이스트 캠퍼스

공동 현장 리서치 기간(그룹 A와 B 만남)

8/19 제주 현장 학습: 그룹 B 환영
8/20 제주 4.3 평화 공원 리서치
8/21 제주 에너지 전환, 양식, 감귤 재배 현장 리서치
8/22 제주도 자유 일정 (Group A 마무리)

그룹 B

8/23 제주에서 대전으로 이동; 카이스트 캠퍼스
8/24 기록과 분석의 기술; 카이스트 캠퍼스
8/25 예술과 미디어의 기술; 카이스트 캠퍼스
8/26 포항, 울산 리서치 데이
8/27 워크 데이; 대전 카이스트 캠퍼스
8/28 그룹 B 마무리: 대전 카이스트 캠퍼스

9-11월: 여름 학교 참가자 온라인 교류 및 연구 개발 기간

12월: 암스테르담-대전 하이브리드 프레젠테이션